

커피 한잔에 담긴 향긋한 추억

‘백마 화사랑 바리스타팀’

추억의 장소 백마 화사랑이 고양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붉은 벽돌, 나무 탁자와 의자, 턴테이블과 벽난로 등 시간의 흐름이 묻은 공간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고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된 백마 화사랑 바리스타팀이다.

글 편집부 / 사진 조병우



청춘과 낭만의 백마 화사랑

고양시의 명소 백마 화사랑 ‘숲속의 섬’. 이곳은 1980년대 신춘 소재 대학생들이 모여들었던 청춘과 낭만의 장소이다. 시간이 흘러 카페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백마 화사랑 또한 문을 닫게 됐으나 고양시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재탄생 시켰다. 올해 11월 30일 다시 문을 연 이곳은 고양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경험과 연륜의 커피 한잔

이곳에서는 평균 65세의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 준다. 고양시니어클럽에 소속된 백마 화사랑 바리스타팀(이하 바리스타팀)이다.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9명의 바리스타들은 모두 백마 화사랑에 추억이 있는 이들이다. 바리스타팀 최고 연장자인 황혜숙 씨(73세)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기대와 설렘,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그래도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용기가 났습니다.”

알고 마시는 커피가 더 맛있다

이미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로 구성된 바리스타팀은 최종 선발 후 한 달의 교육을 거쳐 백마 화사랑의 바리스타로 서게 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매력은 무엇일까? “젊었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커피를 배워보니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지식으로 백마 화사랑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드리고 싶어요.”

백마 화사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바리스타팀이 시니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도전하고 공부해서 준비해놓으니 이런 멋진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움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커피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가 느껴져요.
백마 화사랑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